



Harvest Mission International

"But join with me in suffering for the gospel, by the power of God" 2 Timothy 1:8a
<http://www.harvestmission.kr>, hajoon@hotmail.com
8847 Rhine River Avenue, Fountain Valley, CA, U.S.A., 1-714-349-4123

Bethel Institute, Khvao Village, Prey Chhor, Kmpong Cham,
Cambodia, 855-121-765181

Vol. 22, No. 6, June 25, 2014, Pastor/Missionary Kim Hai Joon

Where can I go from your Spirit? Where can I flee from your presence? If I go up to the heavens, you are there; if I make my bed in the depths, you are there. If I rise on the wings of the dawn, if I settle on the far side of the sea, even there your hand will guide me, your right hand will hold me fast (Psalm 139:7-10).

Feeling His breath at the edge of Sahara desert in Timbuktu, Mali, Africa

June 19 (Thu) *My thought are not your thoughts, neither are your ways my ways. So are my ways higher than your ways and my thoughts than your thoughts* (Isaiah 55:8,9) Applying to fly to Timbuktu from Bamako via UN military plane rejected; a man in charge of booking found my id of Christian pastor/missionary. Very disappointed and a bit angry, for I have to travel over 1,000 km on road thru Sahara desert (turned out to be no road at all, just old tracks on sandy dirt floor strewn by thorn bushes), 30-hr back breaking drive in a car with no proper cushion on seat). Almost protested to the Lord 'Why?', but He might say, 'Why not', for now you have plenty of time to pray, meet peoples, see the country. Within one hour less than 50 km on the road, we had two front flat tires, second one barely avoid hitting a roadside parked car and peoples, almost overturned. Louder 'Why?' said I this time. Waiting for two new tires being delivered, I found some peoples sitting under the trees. Sipping tea, I witnessed the Lord



MALI

6월 19일 (목)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사 55:8, 9). 말리의 수도 바마코에서 북동쪽 사하라 사막 언저리에 투아렉족의 본거지 팀북투로 (육로로 1,000 킬로) 전도 여행을 가기 위해 UN군이 운영하는 항공편을 신청했으나 거절 당했습니다 (담당자가 나의 신분이 기독교 목사/선교사임을 알아). 실망 되었고 좀 화도 났습니다. 이 나이에 내 일도 아닌 주님 일을 하러 가려는데 허리 끊어지는 황토 먼지 (가보니 북쪽 200 km는 길도 아닌 먼지 차가 지나간 희미한 흔적을 따라 가시덤불을 헤치며 가는) 길을 30시간을 가야 하나요? 길 떠난 지 채 한 시간도 안 되는 50km를 가는 동안 두 번의 타이어 flat (두 번째는 길가에 고장 나 수리 중인 차와 사람들을 받을 뻔 피하려다 거의 전복 할 뻔). 혹 되돌아가라는 주님의 뜻은 아닐까? 사탄도 원망해 보고 (모든 일에 자기를 blame 한다고 불평 한다면서요) 참 혼란스러웠습니다. 바마코에서 두 개의 새 타이어를 가져오는 것을 세 시간 동안 기다리며 차라리 돌아감이 현명하지 않을까

Jesus to those Muslims, and did they surprisingly pray to accept Him as God and Savior. Right there, being goal oriented, I wanted to go to my destination quickly and comfortably to save time and energy in order to witness Jesus over there a thousand kms away. But His way is different from mine; Knowing still peoples to be saved on the way, He has redirected me to meet them. He taught me not to justify means for a goal, but surrender all things upon Him - not to be goal oriented, but process. Took us 13 hours to reach midway point city and checked in small hotel(?) paying \$55 blood money (also was a victim to mosquitos and fleas), did I feel definitely a reliable 4-wheel drive pickup for evangelizing trip in this country.



June 20 (Fri) ... *'You are my servant'; I have chosen you ... So do not fear, for I am with you; ... I will strengthen you and help you; I will uphold you with my righteous right hand* (Isaiah 41:9b, 10).

I rejected guide's suggestion that we should hire an armed militiaman to escort us for today's trip; passing thru many military checkpoints would be easier (they may not let a foreigner like me pass thru) and possible abduction attempt could be foiled (cost \$50/day plus room/board). Perhaps make sense to some but not to me, not because of cost but my protection is the Lord Jesus. Also during crusade and seminars on words, neither did idea of hiring four military policemen for protection buy me (not to mention ridiculous cost!). Yes! We passed many checkpoints, but soldiers did not see me, though I looked and smiled at them straight. Who said there was road, not at all; just faint tracks of tire marks (who knows when the cars went to where?). We followed

가름했습니다. 가까이 모슬렘들이 나무 밑에 앉아 담배를 피고 있어 함께 차를 마시자고 초대하며 예수를 증거 했습니다. 놀랍게도 저항 없이 복음을 들었고 (예수만이 창조주 하나님이고 구속주임을 전했습니다) 기도해 영접했습니다. 바로 거기서 우리는 얼마나 목표 지향적으로 행동 하는가 (전도하기 위해 목표하는 곳을 빠르고 편하게 시간 절약하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 과정을 아주 쉽게 정당화 하지만 주님은 그 목표로의 과정에서도 우리를 통해 일하려 하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순종해 맡겨졌을 때 비로써야 주님은 생각지도 못한 일을 통해 하시는구나. 과연 나의 생각과 길과 다르고 높으시다는 말씀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목표 지향적이기 보단 과정 지향으로 전환하십시오. 13시간 만에 600킬로를 이동해 한 밤중에 중간 정도의 도시 쉼베레의 하꼬방같은 호텔에 피 같은 거금 \$55을 지불하고 (캄보디아의 \$8짜리 게스트하우스 보다도 훨씬 못한) 모기, 벼룩에게도 헌혈하며 잠을 설쳤습니다 - 어유 억울해! (다음엔 텐트를 갖고 라면 끓여 먹으며 camping 하면 훨씬 경제적이고 재미있을 것임). 이 나라 전도 여행엔 절대적으로 믿을 만한 사륜구동 차량이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6월 20일 (금) ...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 41:9b, 10)

함께 동행하는 현지 사역자가 오늘의 여행과 팀북투에서의 전도 집회를 위해 무장 경호원을 채용 동행 할 것을 제의 했지만 거절 했습니다; 많은 군인들이 지키는 검문소를 지나는데 나 같은 외국인을 통과 시키지 않을 뿐 아니라 혹도중 납치하려는 시도를 방지 할 수 있기에 그리 하자 했습니다. 혹자에겐 그럴 듯 하겠지만 내겐 그렇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은 비용도 비용이지만 (총 네 명을 사흘 간 고용하면 \$500 이상) 우리의 지킴이 주 예수께 있기에 더욱 그럴 순 없습니다. 많은 검문소를 지나쳤지만 군인들은 자기들을 똑바로 보며 미소하는 나를 보지조차 않았습다. 누가 그곳에 길이 있었다했는지 200킬로 거리를 희미한 차가 지난 듯한 자국을 따라 (언제 어디로 어떻게 갔는지 누가 알까만) 사막 황토 모래밭을 빠른 속도로 지그재그 (zigzag)로 운전이 아니라 글라이드 하듯 가시나무 사이로 놀라 뛰어드는 양, 염소 무리들을 피해 갔습니다. 사하라 사막이 이렇게 한 없이 펼쳐진 이 지역은 사막화가 급속화해 (이슬람화와 같습

thru thorn bushes, slipping every now and then on water soaked yellow dirt floor, avoiding crashing startled jumping sheep and goats, no sign of traffic coming or going, we're alone in southern edge of Sahara desert. However, strongly did I feel His presence with me, His breath on me, hear His soft trucks, tanks deeply imbedded, half buried) were we, and arrived at flea infested hotel in Timbuktu covered in sand

(Paid \$52/day, though no electricity too often). Took more than 35 hours to cover 1,000 km; no energy left physically, but joyful and strong in spirit, for to those who hope in the LORD will renew their strength so that they will soar on wings like eagles, will run and not grow weary, will walk and not be faint. From 5 pm, without taking any rest, I started teaching on 'Who Jesus Christ is' (theme of word seminar). Before the civil war in 2013, there were about 200 Touareg and Songhai tribal Christians with four churches. Now many were scattered and about 50 came to the seminar to hear the words. We prepared meals of roasted lamb, fish, barley bread for peoples, who're extremely poor and hungry. Especially seeing children overjoyed made us so glad that we served them with physical and spiritual food as well.



니다) 얼마 안가 모래로 덮일 것입니다. 이리들 몇 사람만이 외롭게 가는,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이 이렇지요, 사하라 사막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임재를 그분의 호흡을 우리에게 위로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광야에서 주님도 홀로 계셨을 때 외로우셨을까 wondering 해 봅니다. 15시간의 롤러코우스트를 탄 것 같이 허리가 부러지고 휠 것 같은 제대로 쿠션도 없는 자리에 쪼그리고 앉아 총 35시간 만에 1,000 킬로를 달려 벼룩 투성이인 제 멋대로 전기가 오고가는 호텔에 (모기 소리가 과연 5성급; 하루 숙박비 \$52) 도착했습니다. 비록 육신은 물먹은 솜같이 무겁고 피곤하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어, soaring like eagles, 달음박질하여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영이 기쁘고 강함을 얻어 감사했습니다. 피곤을 풀 여유도 없이 5시부터 이번 세미나의 주제 '예수님은 누구신가?' 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팀북투에는 2013년 내란 전 약 200 정도의 투아렉족, 송아이족 성도와 네 개의 교회가 있었으나 (저의 동역자 B 목사 교회 포함) 전쟁으로 흩어지고 50명 미만의 성도들이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이들을 많이 가진 난민들이라 이들을 위해 식사를 준비했고 허기져 쓰러져 있는 아이들을 보며 식사를 대접하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운 양고기와 물고기 보리떡을 맛있게 먹는 성도들을 보며 이들에게 영적 오병이여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했습니다. 내일도 계속 될 말씀 세미나와 전도 집회로 인해 밤 새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지역에선 이미 두 차례에 걸쳐 한국 J 선교사가 현지 동역자들과 함께 난민들을 위한 식량 구제 사업을 했고 복음 전파를 위한 발을 일구고 있습



Sitting down together, straightly did I preach the gospel to them and invite

June 21 & 22 (Sat & Sun) *I am the bread of life, the light of the world,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Before the morning seminar, I felt so compassionate with four Touareg elders, who came to expect some help for their peoples' needs in food, medicines and tools for planting. Though they walked for a long distance crossing desert to meet their physical needs, what they got was instead immeasurably more precious than anything else in the universe; free salvation and eternal life. them to accept Jesus Christ as their God, Lord and Savior. And they did! Cannot help crying with thankfulness to the Lord Jesus for His saving grace.

These peoples, who are so hungry and thirsty, welcomed His Word, logos in lemma, and sang, ate, had fellowship together. Whole city of Timbuktu with its glorious time (in worldly point of view), but in actual darkness, of Islamic teachings in the past, is rapidly being buried by blowing sand from Sahara desert in the north. Soon it will disappear. While there is still light shining, we should work diligently before the darkness soon will overtake. Before evening meal being served, we held first public crusade for Jesus in this city. Over 300, mostly Touareg peoples, came to listen to the message of salvation thru Jesus Christ, who is the Creator, therefore the Master over all, redeemer, comforter, living water,



Mosque in Timbuktu



Touareg people listening to Jesus' salvation message first time (예수의 구원의 소식을 듣는 투아렉)

니다.

6월 21-22일 (토, 주일) *나는 생명의 떡이라, 세상의 빛이라, 부활이요 생명이라*

아침 말씀 세미나를 시작하기 전 어제부터 먼 사막 길을 걸어 자기네 부족사람들의 구제를 청하기 위해 온 네 투아렉 장로들을 생각하며 주님이 잃어진 영혼들이 구원 받기를 원하시며 가지신 연민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양식과 약품과 농사를 위한 농기구 등들을 원하지만 주님은 그런 것들보다 비교할 수

도 없이 더 귀한 구원과 영생을 값없이 선물로 준비하셔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시간의 지체함 없이 함께 교회 안으로 청해 그들에게 단도직입으로 예수를 증거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언제 육신이 끝날지를 알 수 없는 분들이기에 더욱

급하게 느껴졌습니다. 놀랄 것도 없이 이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유일한 참 하나님으로 (이슬람권 지역에서 'No God but Jesus' 라고 공개적으로 하는 말은 아주 쉽게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주인으로 구세주로 영접하며 기도했습니다. 참으로 주님의 amazing한 은혜 부으심으로 구원 받는 백성들로 감사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배고프고 목마른 이 백성들은 선포되는 예수님의 말씀 (logos in lemma; 직접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환영하여 받고, 찬양하며 주 안에서 떡을 떼며 교제했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본 이슬람 가르침의 찬란한 영화를 누렸던 그러나 실제

론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는 팀북투시는 이제는 북에서 불어오는 모래로 무쳐가고 있는 곧 사라질 땅입니다. 아직 빛이 있을 때 부지런히 그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복음의 씨를 뿌려야겠습니다. 저녁 식사로 섬기기 전에 소문을 듣고 약 300여명의 투아렉족 백성들이 전도 집회에 왔습니다. 이시에서 열리는 첫 이런 종류의 집회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임으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구속주이시오, 위로자, 생명의 떡, 새 생명 주시는 분을 통한 구원의 소식

을 전하는 대리인으로 서

bread of life, and so on. I really do not know how many of them came to know and believe Jesus, though did it not matter at all. His Name was witnessed, the word planted, and in due time, it shall spring up for wonderful harvest, if God willing. What an amazing grace this was! Unless His Spirit opened the door for the word preaching, this was not possible at all. To some might it be so foolish to risk life for this and shun an opportunity of witnessing Jesus. However, when it comes to think of possible some people being saved, it's worthy definitely. Some Christians felt so unsecure and left, for we're at the place just cross the building where Islamic terrorists used to station, and worried about possible attack on us from them. To us, as Paul, 'to live is Christ and to die is gain' is equally valid. We eagerly expect and hope that, whether by life or by death, we will have sufficient courage so that Christ will be exalted in our body always.

June 23 (Mon) *Because of your partnership in the gospel ... He who began a good work in you will carry it on to completion until the day of Christ Jesus*

(Philippians 1:5,6). Time to head back to Bamako. We decided to travel to Sevare to Dangindra, about 500 km, to drop by old cliff dwellers' village of Dogon tribe and spend a night at their mountain. Dogon tribe is known to be highest evangelized tribal group in Mali, and among them many indigenous churches were planted. There are more rocks, somewhat well dressed flat naturally, than any other part of the country, with which they erect walls,

pillars, boundaries for fields. Reaching one village over treacherous paths rock strewn over 15 km, we found two small churches and one well built Catholic outpost among about 300 dwellers. On the top of mountain, breathtakingly beautiful Sahara desert stretched as far as eyes could see and beyond, many water holding pools on rock



chasm, I could feel and marvel at rock formations by His wonderfully carving skills.

게 하신 주님. 감사할 뿐입니다. 몇 명이 예수를 주 하나님으로 구속주로 영접했는지 별로 관계치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증거 되었고 구원의 말씀이 뿌려졌으니 때가 되 하나님의 뜻에 따라 풍성한 수확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웬 은혜인지요.

성령님이 이 전도의 문을 여시지 않았다면 전혀 가능치 않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흑자에겐 예수를 증거하기 위하여 생명을 건다는 것이 어리석을까 모르나 구원 받을 가능한 백성들이 있음을 가능하다면 절대로 가치 있는 마땅히 해야 할 일로 믿습니다. 어떤 믿는 자들은 우리들이 모인 곳이 내란 때 테러분자들이 머물러 있던 건물 앞이라 두려워하고 흑이나 그들의 공격이 있지 않을까 꺼려했지만 바울 형제의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의 말씀이 작금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맞게 적용이 됩니다. 그의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우리들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는 것은 너무나도 간절한 기대와 소망입니다.



Grand mosque in Timbuktu (팀북투시의 대 회교사원 앞에서)

6월 23일 (월) *너희가 복음의 동역자가 되어 ...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 하노라* (빌 1:5,6). 오늘은

바마코로 향해 가는 날. 우리들은 중간 지점 도시 세바레 (400 km)를 거쳐 도곤족의 당간드라로 총 500km를 운전해 그들이 사는 마을 중의 하나를 방문해 하루 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 부족은 말리에서 가장 복음화가 높은 족속으로 알려져 있고 스스로 세운 교회들이 많고 전도에 열심을 낸다 들었기에 꼭 방문해 보고 싶었습니다. 과거에는 아주 약한 소수 부족으로 강한 적들을 피해 높은 절벽에서 동굴 생활을 했던 cliff dwellers이였습니다.



이곳은 무수한 돌이, 그것도 자연이 잘 다듬어 평평해진, 널려 있어 이것들로 아주 We came across an inn keeper (nothing but a couple of mud hut, some tilted wooden stools and tables. He offered

\$2/night to sleep on rock covered with torn down mats and free star gazing 3-D view, which we gladly accepted. He is a Dogon Christian and pastor of one small church with sincere hope of rebuilding that mud brick one to rock walls so that he does not have to repair after each rainy season. We prayed that the Lord Jesus would grant his desire to be answered. Patiently (over 2 hours) we waited his preparing spaghetti with freshly roasted two of his chickens. Never expected to eat such wonderful dish under the stars, sitting on the rock and listening to His wind music, was handsome reward to His servants from the Lord Jesus. He sent strong wind to chase all dragonfly size mosquitos away. Listening to Dogon frogs from rock water pool nearby was His comforting lullaby indeed. There, I had such a heartache of waiting for the Little Prince of Saint Exupery, our Jesus, Prince of Peace, and softly cried for His Coming soon. Come, O Lord! *Marana tha!*



My bed (\$2/night) in Dogon Village

숨쉴 있게 울타리를 만들고, 기둥을 세우고 밭의 경계를 만드는 석공들이 사는 마을 같았습니다. 길이 아닌 바위 위를 길 같이 지나며 이미 수백 킬로의 길이 아닌 길에 익숙한 우리들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super highway 임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별 문제 없었습니다. 300명 남짓 사는 마을에 작은 흙으로 지은 교회가 둘, 돌로 잘 지은 천주교회가 하나; 바위 산 위에 올라 눈이 보이는 한 아름답게 펼쳐져 있는 사하라 사막, 바위 돌 틈새에 고여 있는 맑은 빗물, 여기에도 주님의 손길이 지나 갔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산 위에서 만난 치아가 반쯤 이사 간 여인숙 주인은 (흙으로 지은 움막 돌, 기울어진 나무 의자 서넛, 똑 같이 피곤해 보이는 탁자 등이 다

임) 바위 위에 반쯤 떨어진 mat을 깔고 자는데 1인 당 \$2, 무수한 별들의 canopy는 무료, 을 제안해 기꺼이 수락했습니다. 무수한 별이 보이니 백만 성급도 넘지요. 두어 시간을 기다려가족들이 준비해 준 구운 토종닭을 섞어 만든 스파게티를

이런 곳에서 먹을 수 있으리라곤 전혀 기대도 상상도 못했지요. 무수히 쏟아질 듯 맑은 주님이 이름 지으신 별들, 속삭이듯 부는 바람, 가까운 풀에서 들려오는 도곤 개구리, 이곳에도 주님의 백성들이 있기에 주의 영이 계시니 감사하지요. 이 주인은 기독교인 목회자로 흙벽 교회를 섬기며 우기 때마다 무너져 내리는 예배당을 돌로 짓기를 소망한다기에 주님이 그 원함을 들어 주시기를 기도해주었습니다. 잠자리 크기의 왕 모기를 쫓기 위해 보내 주신 강한 바람은 하루의 먼지 덮인 피곤도 함께 날려 주셨습니다. 쏟아지는 별들을 보며 사막에서 다시 올 작은 왕자 (Little Prince of 생똥주삐리),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는 가슴앓이를 했습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Standing on the summit of Dogon Tribe Village (Sahara desert behind)



Please pray for the following (기도 제목)

1. We plan to continually visit Timbuktu to evangelize to Touareg and Songhai Tribes, and help them to grow grains and vegetables for self support (will distribute seeds). Please pray for safe passages, peoples, who received Jesus Christ to be led to the churches, protect them and churches. (계속해서 팀북투 지역을 방문해 뚜아렉, 송하이 족에게 복음을 전하려 합니다. 안전한 여행과 예수 를 영접한 백성들이 교회로 잘 인도 되어 지도록. 그들의 가난을 돕기 위 해 식량 (주로 조, 귀리), 채소 재배를 위한 씨를 공급하는 사역이 잘 행되고 필요한 재정이 공급되어 지도록)

2. In Cambodia; many mission teams are visiting the Harvest Mission Center in KPC from Korea, China and the States (medical team, youth evangelizing group, health/sanitation teaching team, English Camp teams, praise/worship team). Please pray that all teams are in unity in the Spirit, the Lord Jesus protect them, lead them in various missions, work in harmony with humbleness and obedience. (6월 - 8월 동안 한국, 미국, 중국에서 여러 단기 선교 팀들이 캄보디아 하베스트 쉐타를 방문합니다; 의료팀, 청년 전도 팀, 영 어 캠프 팀, 건강/위생 훈련 팀 등. 이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말씀 과 leadership에 순종해 겸손히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Please pray that the Lord Jesus would provide the HMIC with fund (about 150K) to build outdoor multiple purpose auditorium in the Bethel Campus. This will be used for Crusade gathering, sports competition, worship service for whole schools (need space for 800 peoples to assemble together) (벧엘 대학 내에 다목적

outdoor 강당을 지을 계획이 있습니다. 전도 집회, 운동 시합, 학교 전체 예배 (800명 정도가 모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등을 위한 모임의 장소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필요한 재정 15만 불이 공급 되어 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3. Please pray for the Maranatha International School, which the HMIC plans to open next year (2015) in March for MKs and KMs (children of indigenous peoples coming to Cambodia to be trained as evangelists, missionaries, church planters). We need teachers in all academic fields (Grade 1 - 12); English, Korean, Chinese, math, science, history, computer, etc. (2014년 3월에 시작 할 마라나타 국제 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학교는 선교사 자녀 들과 이곳에서 전도자로 훈련 받기 위해 외국에서 오는 사역자들의 자녀 들을 말씀을 중심으로 교육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모든 학과목의 교사들 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보내 주시도록. 학교 운영을 위한 재정이 공급 되어 지도록)

For contact & inquiry: Dr. Kim Hai Joon (haijoon@hotmail.com)

To participate & support the HMI missions, call Pastor Kim Hai Joon at 855-121765181 or 1-7143494123 & send your donation to:

In the States: HMI (Pay to the Order), 8847 Rhine River Ave, Fountain Valley, CA 92708, U.S.A.

한국: 김 해준 (국민은행, 계좌 번호 223501-04-006730)

2014년 7월1일자 기도제목

1. 베델 초등학교, 중, 고등학교가 7월 19일 부터 여름방학에 들어갑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2014학년을 무사히 마쳐 갑니다. 9학년과 12학년이 7월 초에 있을 국가고시에 올해에도 전원이 합격하여 기독교 교육의 우수함과 시험 부정행위가 만연한 현실 가운데 학생들의 정직함을 들어낼 수 있도록, 학교가 기독교인 교사들로 새롭게 채워져 가고 현직 교사들의 믿음이 증가하여 기독교 학교로서의 정체성을 세워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2. 6월29일 부터 단기 선교 팀들이 베델 캠퍼스를 방문하여 선교사들과 현지인 사역자들과 성서대학 학생들이 다양한 사역들을 펼쳐집니다. 지역 교회들과 학교를 돕고 마을들에 나아가 전도하며 어린이들을 섬깁니다. 7월14일-16일 저녁에는 광뽕잠 시에서 한국 문화를 소개하고 찬양예배를 드리며 노방 전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허락 받는 일과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일에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간섭하심을 위하여, 때로는 같은 시간 대에 여러 팀들이 다른 사역을 하게 되는데 성령 안에서 조화롭게 기쁨으로 섬길수 있는 겸손함을 위하여, 하베스트에서 섬기는 선교사들과 현지인 사역자들이 영육 간에 강건함으로 단기 선교 팀들과 연합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도록, 참여자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과 기쁨
3. 부으심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4. 김해준 선교사는 아프리카 말리 선교여행을 (6월12일-27일) 마치고 캄보디아로 귀국했습니다. 팀북투 지역까지 2400k를 동역자들과 함께 자동차로 여행하면서 그곳의 영적, 육적 환경을 가까이 관찰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영적, 육적으로 고갈되어 있는 그들에게 주의 사랑과 복음의 능력으로 다가 가기만 하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남을, 모슬렘인 두아렉과 송하이 족속에게도 주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성한 영혼들이 있음을 알게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의 곤고함과 가난함을 굽어 살피시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일꾼들을 세워 주시도록, 수도 바마코에서 진행하던 12월 전도집회 계획은 잠정적으로 연기 되었습니다. 바마코에서 진행하고 있는 학교, 고아원, 교회 사역과 팀북투에서의 지속적인 전도사역을 통하여 주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5. 캐나다에서 김 동국, 김(안) 미션 선교사 부부가 6월27일 하베스트 선교사 공동체에 들어 왔습니다. 치과 기공 학교 사역을 목표로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선교훈련을 받을 것입니다. 문화, 언어, 기후에 잘 적응하고 앞으로 캄보디아 복음화에 한 몫을 감당하도록, 선임 선교사들과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현지인들을 섬기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6. 많은 성서대학 교사들과 스태프들이 이제는 결혼하여 자녀들을 양육하는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는 NGO에서 운영하는 무료 어린이 종합병원이 프놈펜과 씨업리업에 있어 전국의 어린 아이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지방은 의료시설이 낙후되고 치료에 제한이 있어 전국에서 두 병원으로 집결되어 치료를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시간과 재정(치료비만 무료)의 소모가 현지인들에게는 부담입니다. 광뽕잠시에도 어린이 병원이 설립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캄보디아 벨렐 하베스트 선교 쉼타에서

김 연환 선교사